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 및 평가*

기 광 서**

1. 머리말
2. 소련의 대일전 수행
 - 가. 소련의 참전 준비
 - 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3.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조치
4. 광복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5. 맺음말

1. 머리말

1945년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해방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광복은 연합국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리 특히, 미국의 대일본 원폭 투하 후 일본의 항복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의심을 품은 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열망과 투쟁이 광복을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적잖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반향은 그리 크지 않다. 여기에 8.15 해방에 대한 항일유격대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 북한 측의 공식 주장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8.15 해방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입장은 보편화된 통설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이 연합국의 대일전 승리의 결과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이 직접적으로 8.15 해방을 이끌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논리는 정작 한국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데올로기적 영향으로 인해 논의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8.15 해방에 대한 각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이 시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수반해야 한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로도 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본다면 연구의 의미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8.15 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정과 일본의 항복을 이끈 요인이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이래로 구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에 대해 수많은 문헌이 생산되었다.¹⁾ 이들 연구

1) 대표적으로 다음의 저술을 들 수 있다. Вногченко Л. Н. Побе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 1966;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Александров А. Великая побед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으나²⁾ 여전히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측 주장은 생소하기만 하다.

이 글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진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가운데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전투는 기존 연구와 새로운 사료를 통해 한국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 문제와 해방에서 소련군의 역할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8.15 해방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시각을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고 그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소련의 대일전 수행

가. 소련의 참전 준비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단독으로 싸우고 있던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소련을 끌어들이 전쟁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로 기약 없는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 역시 참전의 대가를 보장받길 원했다. 이것은 1945년 2월 미·영·소 정상이 모인 얄타회담에서 소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구체화되었다: 외몽고의 현상(現狀)유지,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도서의 반환, 소련의 우선권 보장하에 다롄(大連)항의

e. Август 1945 года. М., 2004: от Забай калья до Коре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2) 이를테면,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М., 1976)는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함성, 1989)로 번역 출간되었다.

국제화, 소련의 해군기지로써 뤼순(旅順)항 조차 부활, 중국과 공동으로 중동·남만철도 이용 재개, 쿠릴열도의 소련 할양.³⁾ 이들 참전 조건은 과거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고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었다.

소련은 대독전쟁 종전 2~3개월 후 대일전 참전을 약속하였다. 1945년 들어와 유럽 전선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4월 5일 소련외무상 몰로토프는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대일 중립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이 소련을 침공한 독일을 지원하고, 소련의 동맹국들인 미·영과 전쟁을 함으로써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⁴⁾ 본격적인 전쟁준비는 대독전이 끝나고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대규모 병력 및 군수물자의 이동이 개시되었다.⁵⁾ 과거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소련은 전체적으로 대일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6월 말 소련군 최고총사령부는 대일전 계획을 확정하였다. 처음 전투작전은 8월 20~25일 사이에 시작해서 1개월 반~2개월에 끝내도록 계획되었지만 포츠담회담(7월 17일~8월 2일) 이전 소련군 총참모부는 개전일자를 8월 11일로 정했다.⁶⁾ 포츠담 회담 기간인 7월 24일과 26일 양일간 미·소 참모총장 회의는 한반도 북부를 대일작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다.⁷⁾ 하지만 이때는 한반도에서의 지상 작전이나 점령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만주를 포함하여 해·공군의 작전구획만을 확정하였다. 동해안쪽에서 작전을

3)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111~112. 단, 외몽고와 위의 항구들 및 철도에 대한 협정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4) История дипломатии. Т. 4, М., 1975, с.697.

5)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Т. 11, М., 1980, с.191.

6)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с. 242~243.

7) 金基兆, 『38線 分割의 歷史』, 서울: 東山出版社, 1994, 150~158쪽.

담당한 소련 태평양함대의 임무 중 하나는 일본 함정의 북조선 항구 정박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북조선 항구의 장악 임무는 정작 전 투작전 개시 후에 부여받았다. 지상군의 투입도 개전이 임박하면서 소련측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상황에 따라 투입 가능성은 열어놓았다.⁸⁾ 소련군 총참모부는 일본군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군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였는데, 그 가운데 조선이 우선 지역으로 꼽혔다.⁹⁾ 더욱이 조선인들이 일본을 극도로 증오했고 있는데다가 조선이 만주의 관동군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련 연해주로부터의 타격에 의해 쉽게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약점으로 인식되었다.¹⁰⁾ 이로 보아 북한 북부지역으로의 군대 투입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월 26일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다. 7월 말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와 참모부가 시베리아 동부 도시 치타에 설치되었고, 8월 5일에는 연해주집단군이 제1극동전선군으로, 극동전선군이 제2극동전선군으로 개칭되어 개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개전일자는 최종적으로 이틀 더 앞당긴 8월 9일로 결정되었다. 이때는 사실상 개전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날짜를 앞당긴 이유는 8월 6일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이 조기에 미국에 항복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알타협정에서 보장된 소련의 이권 보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8) 소련군의 한반도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광서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구상과 조선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슬라브研究』 (제30권 4호, 2014) 참조.

9) Штеменко С. М.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в годы войны. М., 1975, с.413~414.

10) 위의 책, с.412.

8월 8일 소련 외무인민위원 V. M. 몰로토프는 일본 대사 사토를 초치하여 7월 26일 자 미·영·중 3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일본 정부가 거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9일 0시부터 소련은 일본과 전쟁 상태에 있게 될 것임을 알렸다. 대일전 선전 포고 후 극동 소련군 각급 부대에서는 “일본 침략자를 괴멸하고 동북 중국과 북조선 인민을 포함한 많은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전투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¹¹⁾ 표현하는 집회와 모임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는 자바이칼 전선군, 제1, 2 극동전선군, 태평양함대, 아무르강 적기 소함대로 이루어진 부대들을 지휘하였다. 독소전쟁에서 거의 모든 대단위 작전에 참여한 A. M. 바실리엠프스키 원수는 대일전쟁의 총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대 한반도 작전에 참여한 군대는 사령관 K. A. 메레츠코프 원수와 군사위원 T. F. 슈티코프 상장이 이끄는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과 태평양함대였다. 제25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I. M. 치스차코프 대장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이 직위를 부여받았다.¹²⁾

제1 극동전선군 예하 군 가운데 만주와 한국에서 일본군을 축출할 작전의 주력은 제1군과 제5군이었으며, 제25군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다. 제25군은 국경선을 굳건히 지키고 제1 극동전선군의 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였으며, 인접군 진영에서 돌파작전이 이루어진 후에야 주력을 동원하여 남서 방면에서 공격을 지속하도록 했다.¹³⁾ 25군의 작전계획에서 직접적인

11)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 1974, с.420.

12)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12. 치스차코프와 함께 제25군 부사령관으로 P. F. 라쿠친과 참모장 V. I. 펜콥스키가 임명되었다.

13)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

한반도 진공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 다만 I. S. 유마셰프 해군대장이 이끄는 태평양함대의 예비전력은 조선 북부항구로 1개 보병군단 규모의 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럴 경우 제25군은 이 상륙부대와 합동으로 훈춘(琿春), 회령, 청진 방면을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¹⁴⁾ 다시 말해서, 태평양함대는 처음에는 북조선 항구에서 일본 선박의 정박을 저지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지만 전투 과정에서 항구도시를 점령하라는 추가 임무를 받았다. 이 모든 증거는 애초에 소련 지상군이 한반도 북부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작전을 제외하고 중심 깊숙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8월 9일 0시를 기해 소련군은 만주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에 대해 전면공격을 실시하였다. 일본군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기습 공격이었다. 공식적으로 소련이 내세운 참전 목적은 다음에서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소련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빼앗긴 남사할린을 회복하고 대양으로의 자유로운 출구를 보장하며 동방에서 일본의 위협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일본 식민지역압에서 해방된 만주와 조선이 다시금 어떤 다른 국가에 종속되거나 대소련 공격을 위한 위험한 근원지 또는 군사기지로의 전변을 막는 것을 자신의 전쟁 목적으로 삼았다.¹⁵⁾

이 목적은 전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소련의 참전 동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어느 특정 강대국의 편에 서거나 그를 위한 군사적 기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가 타국에 종속

AMO, Ф. 379, оп. 11019. д. 8. л. 21.

14) 위의 문서.

15) “О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в Корее.” РГАСПИ, ф. 17, оп. 128, д. 1119, л. 128.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소련 역시 한반도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8월 9일과 10일 P. N. 레메스코 공군중장이 지휘하는 소련 태평양함대 소속 공군은 옹기, 나진, 청진 소재 일본 해군기지에 폭격을 가했다. 동시에 태평양함대 수뢰정들은 적 함선에 타격을 가해 10일 오전 제25군 예하 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제25군의 보조적인 역할은 10일부터 새로이 변경되어 전선의 주요 타격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 곧바로 11일 제25군의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제5군에서 제17 보병군단(제187, 366 보병사단, 제72 기계화여단, 제219 군단포병여단으로 구성)이, 제1 극동전선군 사령관 예비에서는 제88 보병군단(제258, 105 보병사단, 제209 기계화여단, 제220 군단포병여단)과 제10 기계화군단(제42, 72, 204기계화여단, 3개 자주포(CY)-100 연대, 제621 기계화연대, 제970 고사포연대, 2개 근위 박격포대대, 제55 독립모터사이클대대)이 각각 편입되었다.¹⁶⁾ 제25군에 맞서 일본군은 제3군이 직접 방어하였고, 북한 지역에는 나남과 함흥 지역을 중심으로 제34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소련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제1 극동전선군의 좌익방면에 위치한 제25군은 남서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하면서 만주 왕청-연길-투먼 지역을 장악하고 북조선 항구에서 만주의 중·동부 지역으로 일본군의 이동을 차단할 과업이 부여받았다. 제25군은 또한 전투과정에서 태평양함대와 연합하여 청진과 나남의 점령을 명령받았다.

8월 11일 태평양 함대 소속 정찰대원들이 별다른 작전 없이 옹기항에 상륙하였으며, 이튿날 제393 보병사단은 CY-76 기관총 중대와 함께 오전 5시경 경흥에서 나와 8시경 전투를 치르지 않고

16)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АМО, Ф. 379, оп. 11019. д. 8, л. 3.

태평양함대 육전대와 연합하여 웅기를 장악하였다.¹⁷⁾ 제393 보병사단은 웅기에 수비 병력을 남겨 두고 나진시로 진출하여 일본군 보병대대와 교전을 벌였고, 13시에 도시 외곽의 건물에 있던 자동화기 부대를 괴멸시키고 이 도시를 점령하였다. 육전대와 합동작전에 의해 수행된 나진 점령은 일본 해군기지이자 대규모 산업 중심을 청진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내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청진 점령과정이었다. 일본군은 청진에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 함대는 일본군대의 해양 탈출을 저지하고 항구를 탈취하며 연안을 따라 진격하는 제25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할 것을 명령 받았다.¹⁸⁾ 8월 13일 정오 해군 정찰대와 기관총 중대대를 태운 6척의 수뢰정이 청진항에 돌입하여 전투를 개시하였다.¹⁹⁾ 곧 이어 주력 부대들이 해상으로부터 투입되어 청진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한편으로 8월 14일 오후 제393 보병사단은 제505 보병연대와 함께 청진으로 진격을 위해 경흥, 웅기, 나진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16일에 이르러 제393 보병사단은 동틀 무렵부터 일본군 나남 보병사단 보병대대와 청진 북쪽 12km 지점 언덕 접근로에서 전투를 벌여, 15시경에 이를 격퇴하고 청진시 외곽에서 소련군 육전대 부대 및 제335 보병사단 구분대와 합류하였다.²⁰⁾ 4일간에 걸쳐 청진 장악을 위한 격렬한 전투는 이렇게 종결되었다.

8월 17일 제393 보병사단은 나남 방향으로 진격하여 이 도시를 점령하고 부령 근교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일본군 나남사단 부대들을

17) 위의 문서, л. 43.

18) Чистяков И. 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 М., 1985, с.276.

19)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126.

20) “Журнал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25 армии с 9 по 19 августа 1945 г.” Ц АМО, Ф. 379, оп. 11019. д. 8. л. 54.

남쪽과 북서쪽으로 퇴각시켰다. 소련군은 해로를 통한 일본군의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에 어대진(漁大津), 21일에 원산에 육전대를 상륙시켰다.

알려진 대로 일본은 8월 10일 소련 정부에 자신의 항복 결정을 통보하였고, 11일 일본 왕 히로히토(裕仁)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용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때 소련지도부는 이미 개시된 작전에 대해 어떠한 중단이나 변경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작전 변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도 소련군 전선부대에는 작전 중지나 변경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의 항복 후 한반도에 유일하게 군대를 투입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일본군의 항복 접수 선으로 38도선을 분할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한 연구는 일본의 역사학자 와다 하루끼(和田春樹)의 주장을 인용하여 모든 쿠릴열도의 소련군 점령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이 동의를 표시한 것이 스탈린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인 것처럼 쓰고 있다.²¹⁾ 이는 당시의 정세 흐름 속에서 일견 타당한 분석처럼 보이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설령 스탈린이 한반도 남부의 점령을 요구했다하더라도 트루먼이 이에 반대했다면 소련이 이를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소련으로서는 아직 미·소간 협력을 중시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장래는 특정 국가가 아닌 연합국의 공동 합의에 의해 내맡기려는 소련의 원칙적 입장이 작용하였다.²²⁾ 다만 처음부터 지상군의 투입을 확정짓지 않고

21)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9 августа - 2 сентября 1945 г.). М., 2006, с.254.

22) 해방 직전부터 소련은 연합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후견)에 자국의 참여

개전과 함께 전격 투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일본의 분할 점령에 대한 미국의 거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일 작전 지역에 한반도가 포함된 관계로 일본의 항복 후 군대 주둔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한반도 북부에 대한 점령은 처음에는 몇몇 항구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전면적인 점령은 일본의 항복 직후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즉시 무기를 내려놓은 것 같지는 않다. 8월 16일 소련군 총참모부는 일본군의 실질적인 항복은 아직 없고, 소련과 “장난치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작전을 계속할 것을 작전부대에 전달하였다.²³⁾ 일본군이 저항을 멈춘 것은 18일이었고, 심지어 원산에서는 22일에 소련군에 항복하였다. 전투가 벌어진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이루어졌다.

8월 25일경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완료되었고, 9월 초 25군 부대는 38도선까지 진출하였다. 소련군이 남쪽으로 진격을 멈춘 것은 일본군의 항복 접수선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할 것을 규정한 미국의 ‘일반명령1호’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대일전에서 소련군은 모두 3만 5천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당했다.

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조선문제에 대한 다자 해결 방침을 유지했다. 그런데 스탈린이 역사적·지리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해 온 일본의 점령을 기대하고 한반도에 대한 양보를 하였다든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6, 87쪽. 그러나 이 때는 미국이 이미 소련의 홋카이도 점령을 거부한 상태였고, 일본에 대한 공동 점령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불확실한 것은 획득하기 위해 확실한 것을 양보했다는 논법은 어색해 보인다. 소련은 전쟁 전에 한반도 처리 방식으로 내세운 연합국에 의한 공동 해결 방침을 견지하였다. 만일 소련이 일본 점령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한반도를 활용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해서 나중에 협상하는 방법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23) Мерецков К. А. На службе народу. Страницы воспоминани. М. 1969, с.437~438.

그 중 북한 지역의 전투에서 입은 사상자 수는 전사자 691명을 포함한 1,963명에 달했다.²⁴⁾ 이것은 소련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린 군대라는 주장을 지속한 실체적 근거가 되었다.

3.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조치

8월 24일 제25군 낙하산 부대가 평양과 함흥에 투하되었고, 그 다음 날 북한에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는 완료되었다.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의 중군 기자였던 루닌은 소련군이 함흥에 진주할 때의 광경을 감성적 필치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파도는 당도한 사람들에게 부닥치었다. 그 순간의 남은 것은 다만 충만된 환희의 소리와 아물거리는 알지 못할 얼굴뿐이다. 그들은 보전대 몹시 중대한 것을 통지하려고 애를 썼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능금과 무엇인지 보지 못하던 음식을 대접하였다.²⁵⁾

이 글은 한국의 해방에 직접 참가한 소련군이 현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해방의 기쁨을 공유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의 각 도시마다 주민들이 붉은기를 흔들고 그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다.²⁶⁾ 소련 언론은 이러한 현지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해방군’으로서 소련군의 업적을 알리는데 힘썼다.

24)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снят.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вой нах, боевых дей ствия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325; Людские потери СССР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Пб., 1995, с.80~81.

25) 『레닌기치』 1946년 6월 28일.

26)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119, 134, 138.

해방이 되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각지에서는 자치기관들이 생겨났다. 초기에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정치위원회, 보안위원회, 자치위원회 등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이들 자치기관은 소련군의 영향이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 명망가들이나 반일세력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에 확산되었다. 8월 16일 평양에서는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산주의자 현준혁(玄俊赫)을 부위원장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면서 한글로 된 대민 방침인 「군경무관의 명령서」 제1호를 배포하였다. 그 요지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 발생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잠정적이거나 일제 민간기관들을 존속시키도록 하였다.²⁷⁾ 또한 일본군대 및 군사당국의 소유물은 소련군 지휘관의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제 민간기관의 존속 방침은 각지에서 인민위원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되면서 곧바로 사문화되었다.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8월 25일에 완수되었다. 이튿날 제25 군사령관 I. M. 치스차코프 상장은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현준혁 등 북한 내 지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해방을 축원하면서 “해방된 조선의 자유로운 인민들에게 새 조선을 설립함에 전진과 가장 특수한 성과”²⁸⁾를 기대하였다. 소련군의 통치 체계 구축은 T. F. 슈티코프가 이끈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가 지휘하였다. 만주 점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 및 주민 생활의 정상화와 더불어 지역 통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도, 군, 대도시에는 경무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통제기관은 6개 도(강원도 포함), 85개 군 그리고 평양, 진남포, 청진, 함흥, 신의주, 해주, 원산 등 7개 시에

27) ЦАМО, ф. 32, оп. 11318, д. 196, л. 235.

28) 『레닌기치』 1946년 7월 10일.

두었고, 그 숫자는 최대 113개에 달하였다.²⁹⁾ 경무사령부의 주된 임무는 각지에 설치된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 통제하는 것이었다. 각 도 경무사령부는 각 병단 정치과 책임자급으로 고문관을 두어 경무사령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방자치기관 및 각 사회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소련군대의 주둔 체계는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비되었다. 대일전 이전 소련군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권력 접수와 질서 재편을 경험한 바 있었다. 초기 권력 접수의 주체로서 소련군 사령부와 경무사령부의 활동은 이들 지역에서 도입된 것을 대체로 북한에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후 대북한 정책과 정치 체계 등 많은 점에서 동유럽 국가들과 차별성이 드러났다.³⁰⁾

소련군이 개진과 함께 조선인에게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는 수많은 한글 전단을 배포했듯이 소련은 스스로 ‘해방자’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진주 후 바로 주민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해방 초 일부 소련 군인들의 약탈 행위 등과 같은 범죄는 주민 사이에서 소련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상황을 장악하고 있던 공산측에 의해 무마되었다.

초기 각 경무사령관은 붉은 군대와 소련에 대한 비방선전을 적발하는데 힘썼다.³¹⁾ 이몽(李蒙)이 지도하는 민족사회당은 130여 명의 당원과 평안남도 9개 군에 지부를 두는 등 상당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²⁾ 실제 이 조직은 반공 활동에 집중했다. 이 당은

29) Курбанов С. 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 Пб., 2009, с.398.

30) 북한과 동유럽 국가 간에는, 이를테면, 공산당의 당면 목표, 권력구조, 토지 개혁, 선거 방식 등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차이점이 있었다.

31) Краткий справочник для военных комендантов 1945 год., ЦАМО, ф. 32, оп. 11318, д. 196, л. 99.

32) “Донесение по 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АМО, ф. 234, оп. 3225, д. 47, л. 236; 洪聖俊 『古堂 曹晩植』, 서울: 平

얼마 후 소련군에 의해 친파시스트적이란 혐의를 받고 강제로 해산되었다. 같은 시기 이용직(李容稷)이 지도한 태극협회(太極協會)도 불법단체로 탄압을 받았다. 이어서 정당·사회조직에 대한 등록이 실시되었으며, 친일 조직으로 의심받은 단체들은 강제해산을 면치 못했다. 이 단체들이 직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소련군이 가장 경계한 반소·반공적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 정치기관은 주민 가운데서 ‘해방자’로서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켰다. 이를테면, 9월 18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첫 번째 결정으로 북한 주민용 신문 『조선신문』을 발간하기로 하였다.³³⁾ 한글로 된 신문의 발간은 연해주군관구가 주관하였고 발행부수는 10만 부였다. 소련은 이 신문이 소련의 업적 선전과 소련-조선 관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주민 선전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의 친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하였다.

초기 제25군 사령부와 경무사령부는 북한 내 질서를 유지하고 각지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지도, 통제하였다. 특히 제25군 군사회의와 정치부가 이 사업을 주도했으나, 1945년 10월 초보다 체계적인 대민 업무 수행을 위해 25군 군사회의 위원인 A. A. 로마넨코 소장을 수반으로 한 소련 민정기관(Советская граждан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이 설치되었다.³⁴⁾ 민정기관을 조직한 것은 소련군대가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북한에 주둔할 예정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각도 경무사령부 지휘기관으로서 민정기관은 경제, 교육, 문화, 사법 등 10개 부서를 설치하고 군

南民報社, 1966. 192~193쪽.

33) “Об издании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для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ГАСПИ, ф. 17, оп. 3, д. 1053, л. 73.

34) 당시 한국어 표기로는 ‘민정부’로 쓰였기 때문에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民政部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나 실제로는 제25군 산하 기관인 民政部가 정확한 표기이다.

전문가집단을 차출하여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대주민사업, 출판, 교육·문화, 사법, 보건 부문은 해당 책임자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 지도는 민정기관 정치담당 부부장 A. M. 이그나티예프가 맡았다. 경제부문에서는 일본이 파괴한 공장과 기업소의 복구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는데, 산업부 책임자인 T. I. 코르쿠렌코 대좌의 지휘하에 1945년 11월 제1기 가동을 목표로 원조를 제공하였다.³⁵⁾ 이러한 소련군의 정책적 조치가 노리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한반도에 소련에 우호적인(친소) 정부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주민의 지지 확보와 친소적 정치기반의 조성 사업에 모아졌다.

4. 광복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평가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원폭투하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소련군의 참전은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남은 마지막 전의를 상실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방의 요인을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련·러시아도 자기 고유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작전은 일제 치하의 만주와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일본을 퇴패시키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었다. 물론 일본의 붕괴가 두 지역의 해방을 낳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소련의 참전은 엄연히 일본의 항복을 위한 것이었다. 다만 해방은 이 과정에서

35)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98.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선전의 효과를 위해 그 의미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8.15 해방을 평가한 대부분의 소련측 저술들은 한반도 진주 시 소련군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였다. 도처에서 자연발생적 집회와 시위가 조직되고 소련군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³⁶⁾ 당시 주서울 소련영사관 관리들은 직접 해방된 서울의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를 기록으로 옮겼다. 다음은 그들이 작성한 기록의 일부이다.

첫날에 일본의 항복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간의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인들이 그토록 증오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소식은 너무나 예기치 않게, 아주 단순하게 도래하였다. 더욱이 거리는 무장한 일본의 장교, 병사, 경찰들로 가득 찼다. 수도의 조선 주민들은 자신의 기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오랫동안 인민 자신이 대상이었던 일본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조선인 가운데서 서울에 붉은 군대가 진주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중략) 이른 아침부터 수도의 모든 주민들은 거리에 모였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붉은기와 조선국기가 도처에서 나부꼈다.³⁷⁾

8월 16일 시위는 조선 인민이 시위를 이끌고 조선에서 일본인들을 신속히 몰아낼 수 있는 지도자와 당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고, 이 무기를 일본인들에게서 빼앗아 획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 세력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시위는 조선인민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준데 대해 붉은 군대와 스탈린 동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붉은 군대에 대한 감사 슬로건은 바로 주요 슬로건이었고, 게다가 적지 않게 러시아어로 쓰였다.³⁸⁾

36)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с.131.

37) “Масло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В ПР, ф. 0102, оп. 7, п. 5, д. 24, лл. 15-16.

38) “Кратк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доклад о положении в Корее”, РГАСП

소련영사관의 기록은 예기치 않은 해방을 맞이한 첫째 날의 서울 표정과 그 이튿날 광복의 기쁨이 가득한 거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위에서 소련에 감사하고 지지하는 슬로건과 플래카드가 등장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있다. 지하에서 나온 좌파 세력들이 소련 지지 활동을 이끈 것이기는 하지만 ‘해방자’로서 소련에 대한 인식의 등장은 해방과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방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8.15 광복에 대해 소련의 역할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의 역할 또한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공산당 북부분국 기관지 『정로』는 창간사도 “위대한 붉은 군대, 그의 동맹자인 연합군의 힘으로 조선은 호전국가 일본침략자로부터 해방되었다”³⁹⁾라고 하였다. 미소의 협력을 기대하던 광복 초기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어디서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지고 미·소 및 좌·우관계가 악화되면서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국의 역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에 따라 소련과 한국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군대는 일본제국주의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주장을 공식화하였다. 이 논리는 1960년대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부각되기 이전까지 북한 내에서 고정된 사실로서 인식되었다. 소련의 관련 저술들은 한반도의 해방이 자국 군대의 승리에 의해 달성되었음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 논리는 소비에트 체제의 공식적 입장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필자든지 자신 있게 설파하는 주장이 되었다. 제25군 군사회의 위원 겸 주북 소련민정국장을 역임한 N. G. 레베데프는 소련의 ‘해방적 역할’에 대해 소련군이 6일밖에 참전하지 않았고 미미한 기여

И, ф. 17, оп. 128, д. 47, лл. 3-4.

39) 『正路』 1945년 11월 1일.

밖에 못했다는 서방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대일전쟁의 참전자인 우리는 이 전쟁이 쉽지 않았으며, 6일이 아닌 그 이상 지속된 것을 알고 있다. 일본군의 많은 부대들은 천황의 항복 선언 이후에도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를테면, 제1 극동전선 제25군의 공격지대에 있었던 동녕(東寧) 요새구역의 남부 거점 일본수비대는 8월 26일까지도 저항을 계속하였으며, 포로로 잡힌 제3 일본군 사령관의 서면 명령이 있고서야 무기를 내려놓았다.⁴⁰⁾

레베데프의 언급은 대일전쟁이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과 이를 종결하기 위해 소련군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소련의 문헌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투하 후에도 전쟁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핵무기는 일본을 항복시킨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였다.⁴¹⁾ 한편으로 해방 후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에 소련 외교관으로서 참여한 바 있는 역사학자 페투호프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의의에 대해 보다 더 현실감을 불어 넣었다. 그에 따르면, 소련군이 대일전에 가담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촉진시키지 않았다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선이 전장터로 전변되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⁴²⁾ 이 주장은 역사의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실시되자 소련의 역사 서술에는 이념성이

40)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М., 1976, с.62~63.

41)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 11, М., 1980, с.157.

42) Петухов В. И. СССР - освободитель Кореи и ее надежный союзник.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2, 1985, с.39.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의 참가자인 페투호프의 다음 저서는 당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규명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Петухов В.И. У истоков борьбы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 1987.

일부 탈색되었고, 이에 따라 “붉은 군대는 일본제국주의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켰다”와 같은 단정적 표현보다는 구체성을 내포한 언어들에 구사되었다. 이를테면, 소련군의 한반도 진출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1945년 8월 소련군은 조선의 북부에서 일본군에 대항한 전투작전을 수행하였으나 그 승리적 결말은 나라 전체의 운명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소련군의 맹렬하고도 강력한 타격에 의해 도처에서 일본의 군·경찰기구가 붕괴하였고, 식민지 기구가 완전히 마비됨으로써 자유와 독립을 향한 조선의 도정에 주요 장애가 제거되었다.⁴³⁾

이 글은 소련군의 전투행동이 북한 지역에 한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영향은 한반도 전체의 해방을 이끌었다는 변함없는 논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역사 서술은 소비에트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응집력에서 지속적으로 탈피하였다. 그럼에도 8.15 해방에 관해서는 표현 방식에서 이념적 문구 표현만이 완화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논리가 통용되었다. 저명한 한국학자 유리 바닌은 “소련군은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전체 지배체계를 동요·정지시켰으며, 탄압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기관들이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감히 억압하지 못하도록(강조는 원저자)”⁴⁴⁾ 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해방시켰다고 하였다.

소련군에 의한 8.15 해방의 성취 논지는 대일전 공동 참가자인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저평가 내지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저술들은 여지없이 이 점을 지나치지 않았다. 조선인민에 해방을 가져다준 소련군 이외에 “다른 국가의 군대나

43) СССР и Корея. М., 1988, с.131.

44) 유리 바닌, 『한국의 해방: 러시아의 시각』, 『현대북한연구』 제3권 제2호, 2000, pp.295~296.

어떠한 조선의 무장세력도 조선의 해방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대는 관동군이 항복한 지 25일이 지난 9월 9일에야 한반도의 남쪽에 상륙”했다는 것이다.⁴⁵⁾ 또한 극동문제 전문가인 B. N. 슬라빈스키는 일본이 소련의 참전을 자신의 종말로 간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최소한 알타협정에서 약속된 소련에 대한 이권의 보장을 막고 소련군의 참전 이전에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단언하였다.⁴⁶⁾ 또 다른 역사가들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핵 위력 및 세계 인민에 대한 위협, 전후 문제 해결 시 소련에 대한 압력 등의 시위”라고 간주하였다.⁴⁷⁾

현재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학계의 대표적인 입장은 역사학자 쿠르바노프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먼저 한국의 해방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남한 역사가들은 해방과 신국가 수립을 위한 조선정치가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 역사학은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에 주요 공헌을 하였다는 것이며, 소련역사학에서는 붉은 군대가, 미국 역사학에서는 미군이 각각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⁴⁸⁾ 하지만 그는 대일전 참전 과정을 서술하면서 소련군이 한국을 해방시켰다는 직접적인 논법을 쓰지 않고 있다. 대신에 소련군이 치른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희생 등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해방자로서 소련군을 묘사하고 있다.

45) История Кореи(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М., 2003, с.329~330.

46) Славинский Б.Н. Зачем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сбросили атомные бомбы на Хиросиму и Нагасаки?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М., 1995, с.65~66.

47) Мунчаев Ш.М., Устинов В.М.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 2002, с.477.

48) Курбанов С. О.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ости до начала XXI века. С Пб., 2009, с.396.

8월 15일은 코리아에서 해방일로 간주된다. 북한에서는 나라의 해방에 김일성의 업적을 각별히 언급하려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지체제로부터 벗어나는데 소련인민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평양 모란봉에 있는 중앙공원에는 조선해방에 생명을 바친 소련 전사들의 기념탑이 서 있으며, 시민들은 21세기 초인 현재도 이것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 이 탑은 ‘해방탑’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다.⁴⁹⁾

쿠르바노프는 북한에서 현재도 소련군에 대한 호의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는 미군이 조선의 해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소련군의 전투작전 개시 후에 조선의 항구에 기뢰를 부설하여 작전 수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소비에트 저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항 상륙의 주된 과업이 ‘항복 접수’나 ‘해방’이 아니라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장악을 막는 것이었다고 강조하였다.⁵⁰⁾ 러시아 측 언급의 핵심은 소련군이 연합국 가운데 한반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통해 피를 흘린 유일한 군대라는 것이며, 소련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일본의 항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8.15 해방에 관한 소련·러시아 측의 견해는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군이 전적으로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 내지는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은 1941년 12월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통해 심각한 전력의 손실을 겪었고,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은 일본의 저항 능력을 완전히 꺾고 항복을 이끌었다. 말하자면,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가져온 요인의

49) 위의 책, c.398.

50) 같은 책.

하나이지 유일한 요인이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 혹은 소련 단독의 힘에 굴복하여 항복했던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의 유기적인 결합 때문에 항복했던 것이다.⁵¹⁾

앞서 언급했듯이, 해방 후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각지에는 대일전에서 희생된 소련군의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해방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오늘날 북·러관계의 상징처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국가 형성과 이후 전쟁 발발에서 소련이 수행한 역할은 다른 외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국민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를 해방시킨 ‘해방자’와 분단 책임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는 두 가지 모순된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미·영 등 연합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진원지인 일본을 퇴패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8.15 해방은 일본의 항복 결과이며, 역으로 연합국이 승리한 덕분이었다. 일본의 항복 요인으로는 미국에 의한 원폭 투하와 장기전으로 인한 일본 국력의 약화를 들 수 있지만 소련군의 참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의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해방 당시를 제외하고 한국민이 이에 기꺼이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해방과 동시에 연합국에 의해 분단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6.25전쟁과 분단의 공고화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소로 대표되는 연합국은 한반도의 해방뿐 아니라 분단의 중요

51) 이완범, 「蘇聯의 對日戰 參戰과 38線 受諾,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6, 283쪽.

책임자이기 때문에 해방에서 그들의 역할이 강조되기 어려운 것이다.

소련군의 참전이 8.15 해방 요인에 개입되어 있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적 대립구도에 머물러 있던 한국적 현실에서는 부각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싸운 유일한 군대라는 표현 등으로 소련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러시아 측의 완고한 주장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반감으로 표출되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통해 일본의 항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8.15 해방과 소련이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 앞으로의 한·러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소련의 역할에 대한 북한측 인식 역시 러시아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8.15 해방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과도한 서술을 교정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양국이 공히 인정할 만한 ‘한반도의 해방’에 대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현재 한·러관계의 분위기에서 보면, 이러한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원고투고일: 2015.7.12,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8.15해방, 소련의 대일전 참전, 한반도, 소련, 러시아, 북한

<ABS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and Russia's Views on the Liberation of Korea

Kee Kwang-seo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articipation of anti-Japanese war by the Soviet Armed Forces and its ent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larifies the assessment on the role of Soviet army about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view of Russia.

After the surrender of Japan, the Soviet Union abandoned to seize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it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cooperation between USA and USSR, and considered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resolved by related powers, not a specific country. However, in contrast to early expectations, the entry of the ground forces of Soviet Un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due to the United States' denial of the separated occupation of Japanese territory.

The surrender of Japan resulted in the 8.15 National liberation, which was caused by America's dropping of atomic bombs, weakening of Japanese national power through a prolonged war and the anti-Japanese war participation of Soviet army. It is difficult to call the All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liberators', because Allies were responsible for the division of Korea though they actually liberated Korea from Japanese rule. However, the Russian side maintained the logic of 8.15 liberation by the Soviet army. Even if there were difference of the tone of arguments divided into periods, the fundamental principle did not change. This view of Russia makes a difference with North Korea's assertion that emphasizes idea of 'Juche'(self-reli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and Russia to build a logic 'liberation of Korea' to agree with each other, revising Russia's excessive narratives fo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Liberation of Korea,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anti-Japanese War, the Korean peninsula, Soviet Union, Russia, North Korea